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일평균 627.7명 “7월엔 거리두기 조절”

“6월말 고령층 접종 끝나면 효과”
 내일쯤 방역 조치 방안 발표 예정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과 같은 600명대로 유지된다면 고령층 1차 예방접종이 마무리되는 7월부터 격상 기준이나 집합 금지가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최근 들어 가족이나 지인, 낯선 사람과의 만남이나 접촉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어 감염 차단이 어렵다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진단검사를 받는 등 거듭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3일부터 이날까지 1주간 국내 발생 환자는 4394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627.7명이다.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7일부터 3일째 600명대다.

수도권 환자는 402.1명으로 전 주(358.9명)에 비해 43.2명 증가했고 비수도권도 225.6명으로 일주일 전(183.6명)보다 42명 늘었다.

최근 감염 양상에 대해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확산 하려고 하는 힘과 그것을 억제하려고 하는 방역적 노력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크게 증가 하지도 않고 크게 감소하지도 않는 균형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3일 자정까지인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 조치 조정 방안을 금요일인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는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와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고 2단계 지역에선 식당·카페 취식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오후 10시 이후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방역 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지금과 같은 억

제 상태를 유지하는 한편, 고령층의 1차 예방접종이 끝나는 6월 말 이후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안을 적용하는 등 사회적 대응을 조절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손 반장은 “정부는 6월 말 고령층 예방접종이 끝날 때까지 이러한 상황 정도 적절하게 통제되는 수준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며 “6월 말 예방접종이 끝난 이후에 접종의 효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께 감안하면서 다시 사회적 대응을 좀 더 조절해 나간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남과 경북 일부 지역에서 시범 적용 중인 거리 두기 개편안은 2단계에선 9인 이상, 3단계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4단계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을 금지하고 최고 단계인 4단계에서만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에 집합금지를 하고 나머지 단계에선 운영을 중단하지 않는다.

물론 변이 바이러스나 개별 접촉 증가로 인한 유행 확산 우려는 남아 있다.

손 반장은 “억제되는 힘의 노력에 비해서 확산하는 힘이 좀 더 커져서 유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태가 나타나는 것을 우려한다”며 “일본의 경우가 지금 그러한 상태”라고 말했다.

첫번째 변수로 손 반장은 “변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나 국내에서 확산되게 될 것이냐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해 변이 바이러스가 강하게 발견되고 있는 울산 등 지역에 대한 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해 확산을 최대한 줄이고 유행 수준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절이 좋아지고 방역적 긴장도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역수칙 준수 노력들이 함께 이뤄지는 경우 잠복 감염들이 활성화돼 임계치를 넘었을 때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도 우려한다”며 “증상이 있을 때 빨리 검사를 받고 마스크 착용이나 밀폐·밀접된 실내를 피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지난 주말인 15~16일 전국 이동량은 6127만건으로 직전 주말인 8~9일 7479만건보다 18.1%(1352만건) 감소했다.

수도권은 3045만건으로 거리 두기 상황 직전 주말(지난해 11월 14일~15일) 대비 15.2%(544만건), 직전 주말 대비 13.5%(477만건) 감소했다. 비수도권도 거리 두기 상황 전보다 19.2%(732만건), 직전 주말 대비 22.1%(875만건) 감소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부처님 오신 날 가득한 소원지’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한 19일 전북 김제시 금산사의 연등에 소원지가 가득하게 달려 있다.

전남도, 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떼다

시·군과 합동으로 영치반 구성
 코로나19 생계형은 분납 안내

전남도는 20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의 날로 정해 22개 시·군과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번호판 합동 영치는 전남도 체납징수 기동

반과 연계해 전남도 2개 반과 시·군별 1~2개 반이 아파트 단지, 주요 간선도로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 단속해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추진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일명 ‘대포차’로 추정되는 체납차량은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조치 후 공매처분으로 체납세를 충당할 계획이다.

반면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지양하되 분할납부를 안내함으로써 상습·고질 체납을 미리 방지한다.

특히 전남도 이월체납액 793억원의 31%가 자동차세(244억원)인 만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지속할 방침이다.

위훈량 전남도 세정과장은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처분을 하되,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유연한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aT 라이브방송 통해 ‘나주배·영암쌀’ 판매한다

aT-전남도-십일번가(주), 온라인 판로 확대 업무협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온라인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나주배, 영암쌀 판로 확대를 추진한다.

aT는 18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농축수산물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전남도, 십일번가(주)와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전남도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축수산물의 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aT는 온라인 판매, 포스트 등 농식품거래소(eaT)의 플랫폼을 활용해 온라인거래·라이브커머스를 통한 판로 확대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십일번가(주)는 남도장터 브랜드관 운영·판매 수수료율 우대 지원하고, 전남 농축수산물 입

점·프로모션 진행 등으로 힘을 보탠다.

앞서 aT는 온택트시대에 최적화된 신유통 모델 구축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총 6회의 농수산물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통해 누적 시청자 84만명, 판매고 6억5000만원 실적을 올렸다.

김춘진 aT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새로운 유통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라이브커머스와 온라인 경매를 통해 전남지역의 우수 농축수산물을 선보일 수 있게 돼 기쁘다”며 “aT를 통한 온라인 유통 활성화가 전남 농어민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곡성군

2017 제2회 곡성군 소셜미디어 사진공모전 입선작 김정현-침실습지의 부드러운 아침물결

#랜선곡성여행

제5회 곡성군 소셜미디어 사진공모전 PHOTOGRAPHY

공모기간
21. 3. 15. 월 - 6. 30. 수

발표일 2021. 7. 16. (금)

참여자격 전국민 누구나

시상인내 18명 선정 / 총 상금 4,000,000원
작품 수준 미달시 아차상 취소 가능

발표인내 홈페이지 및 군 공식 블로그 게재 (개별 연락)
https://blog.naver.com/gokseong_love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1부
사진 원본파일(3MB 이상)
곡성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제출방법 이메일과 우편접수
이메일 : sangyu100@korea.kr
우편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미래혁신과 스마트홍보팀

#관내사찰 #제월섬
#섬진강기차마을장미정원 #섬진강무릉도원